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7월 23일 자비나눔 방문으로 이대목동병원에 입원한 김민하 소방대원을 찾아 쾌차를 기원했다.

“당신의 헌신으로 우리가 삽니다”

자승 스님, 23일 부상 소방대원 자비나눔 방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부상으로 입원한 소방대원을 찾아 쾌차를 기원했다. 자승 스님은 7월 23일 자비나눔 방문으로 이대목동병원에 입원 중인 김민하 강서소방서 대원을 찾았다. 김 대원은 지난 6월28일 소방 활동을 하던 중 11m 높이에서 추락해 큰 부상을 입었다. 권병용 강서소방서장과 함께 병실을 찾은 자승 스님은 “헌신적인 소방대원들의 활동 덕분에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 쾌유를 기원한다”고 위로했다. 이에 김 대원은 “어머니까서 어린 아기가 염주를 목에 걸고 태어나는 꿈을

꾼 후 저를 낳았다”며 거듭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에 앞서 자승 스님은 강서소방서에 도착, 소방업무에 대해 브리핑을 받은 후 금일봉을 전달하며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자승 스님은 “소방대원들은 항상 긴장감 속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며 “근무환경이 보다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자비나눔 방문에는 사회부장 정문 스님, 복지재단 상임이사 원경스님,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 스님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불교 사회적 기업 활성화 양적 확대부터”

날마다좋은날, 22일 불교 사회적경제 활성화 포럼열어

중앙신도회(사)날마다좋은날 불교사회적경제지원본부(본부장 박주언)는 7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포럼장에서 '2014 불교 사회적경제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불교사회적경제지원본부가 진행해온 성과와 관심을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세션1·2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유남희 교수(전북대 산학협력단)가 불교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강론을, 김광수 소장(신나는조합 신나는기업 상생연구소)이 '불교의 잠재되어 있는 유형의 자산과 콘텐츠개발 및 활용 방안'을, 성진경 대표(사회적기업 오마이컴퍼니)가 '크라우드 펀딩의 불교사회적경제 주체들의 활용방안'을, 강대성 대표(SK행복나라)가 '불교경제주체들의 생산품 및 서비스 판로 지원에 대한 방향성 제시'를 주제로 발표했다. 유남희 교수는 “불교계 사회적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업종별, 지역별로 불교 사회적기업의 양적확대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 지도부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전폭적인 이해와 합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교 콘텐츠개발의 활용방안을 발표한 김광수 소장은 “불교사회적 기업을 시작할 때 불자용품을 전제로 시작하는 것은 제한적”이라며 “마인드는 불교적이지만 스토리와 아이템은 대중적으로 가야 한다. 예를 들어 생활용품과 액세서리 등의 디자인은 친근하면서도 세련되고 독특한 것으로 만들어야 대중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2부에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김종각 판로지원본부장, 불교사회적경제 네트워크포럼 김선배 대표를 비롯한 세션1 발표자들이 나와 활성화방안, 콘텐츠 개발, 자금, 판로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新환경의제보다 실천 동력 마련 시급”

조계종 환경위, ‘불교환경의제21 변화’ 주제 토론회

2006년 불교환경운동의 실천적 의제로 제시됐던 ‘불교환경의제21’을 새롭게 리뉴얼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새로운 조항의 환경 의제가 아닌 실천적 주제와 동력들을 확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는 7월 21일 ‘불교환경의제21의 진화와 실천’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불교환경의제21’이 만들어진 지 10여년이 지남에 따라 지금에 맞는 환경실천 전략 재구성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 마련됐다. 지난 2006년 3년에 걸쳐 완성된 ‘불교환경의제21’은 사찰과 지역공동체, 생태 사찰 만들기 등 5개 분야에 걸쳐 만들어진 31가지의 환경실천방침이다. 종단·사찰·사부대중에게 제안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종교계에서는 최초로 제정되어 21세기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불교 환경사상을 구체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실천 주제와 조직, 예산이 갖추어지지 않은 탓에 지속적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빈그릇운동, 생태사찰 만들기, 친환경 공암미 올리기 등이 꺾꽂이 등장했다. 이는 순간 자취를 감춘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토론회장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토론자들은 환경의제21이 사부대중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어떻게 공유하고 연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 연대와 실천이 부족했다는 점을 문제로 내세웠다. 최원형 소장(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은 “현장에서는 실천가보다 스님의 말 한마디가 중요했다”며 스님이 운동확산의 구심점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십년간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투정할 것이 아니라 당사 환경위에서 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정길 조계종 환경위원(예교보다 전 공동대표) 역시 “주제가 명확하지 않았고 공감대 역시 부족했다”는 것을 실패 원인으로 꼽으며 관련 종령 마련과 예산 편성, 실무자 3가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중심주체를 총무원으로 각 사중 스님, 종무원, 보살, 청년, 청소년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상명하달식이 아닌 밑으로부터의 역동성을 기반으로 프로세스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유 위원은 녹색불교의제 추진 위원회를 올해 9월까지 구성하고 1년간의 활동을 거쳐 실천위원회를 조직하자고 주장했다. 종단 참여에 대한 현실성을 제기하는 지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7월 21일 ‘불교환경의제21의 진화와 실천’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06년 만들어진 31가지 환경지침 활동 주제·조직·예산 없이 표류 중 종령부터 조직·프로그램 개발해야

있는 구체적 실천방침에 대해 논의해 볼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환경·NGO단체의 영향력이 위축된 상태에서 불교환경의제21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목소리도 제기됐다. 조재희 소장(사찰생태연구소)은 “교계 환경단체의 동력이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지난 10년 전과 똑같이 실천력 부재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신도회 등이 탄탄한 사찰 중심으로 프로그램보급 확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길 조계종 환경위원(예교보다 전 공동대표) 역시 “주제가 명확하지 않았고 공감대 역시 부족했다”는 것을 실패 원인으로 꼽으며 관련 종령 마련과 예산 편성, 실무자 3가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중심주체를 총무원으로 각 사중 스님, 종무원, 보살, 청년, 청소년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상명하달식이 아닌 밑으로부터의 역동성을 기반으로 프로세스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유 위원은 녹색불교의제 추진 위원회를 올해 9월까지 구성하고 1년간의 활동을 거쳐 실천위원회를 조직하자고 주장했다. 종단 참여에 대한 현실성을 제기하는 지

적에 대해서는 “3년 정도 환경위원회에서 추진한 다음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사부대중 사이에서 공감대 역시 확보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불교환경의제21이 자성과 설행과 맥을 같이해 궁극적 불교의 변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 자연환경의 문제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환경을 포괄하는 사회적 가치관 전반의 문제로 운동을 확대시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순환적이고 자족적인 삶을 화두로 일본에서 시작된 사방승가 운동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불교적 가르침과 원리를 사회체계에 적용해 지역공동체와 생태계를 재생시킬 수 있는 녹색불교로의 진화를 제안했다. **배현진 기자** inus@hyunbul.com

조계종·선학원, 분원장 회의 놓고 신경전

“회의 참석 해종행위”對 “이사회 결의 재지시”

호법부 회의 앞서 입장문
임원진 말빈 검토 시사도
선학원 부산·대구 회의 진행
분원장들 대다수 지지 결의
수석사 대책위는 피켓 시위

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할 선학원 임원진이 주최하는 각종 회의는 그 내용이나 형식을 떠나 분종 내지 탈종을 기도하는 회의로 오인될 수도 있다”면서 “분종 내지 탈종을 기도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해종행위에 동조하는 것으로 오인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선학원 임원진들에게 말빈 징계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호법부는 “선학원 임원진이 ‘조계종의 종헌·종법에 동의할 수 없음’을 사유로 ‘제적원’을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승려법 제46조 제8호 내지 제47조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법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최종 3차 등원 요구에는 응할 것을 선학원 이사진에 촉구했다. 하지만 선학원은 종단의 입장문에 불응했다. 분원장 회의의 경우 지난 7월 17일 열린 이사회에서 7월 23일부터 30일까지 지역마다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사

안이다. 종단의 경고에도 선학원 분원장 회의는 큰 문제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부산 금정사에서 열린 분원장 회의에서는 32명의 분원장이 참석했으며, 이중 97%가 “이사회 결의를 지지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동의할 수 없다 △종단은 더 이상 (재)선학원에 간여하지 말라 △정화의 이념을 존중하라 등의 결의 사항에도 동의했다. 24일 대구 보성선원에서 열린 분원장 회의에서는 33명의 분원장이 참석해 전원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에 서명하고 재단 임원진의 향후 행보에 조건없이 따를 것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석사 문중 중앙종회의원 정범스님과 수석사 선학원대책위원회 스님들은 부산 금정사와 대구 보성선원에서 진행된 분원장 회의의 모두 찾아 피켓시위를 진행하며, 종단의 종헌 종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신성민 기자**

“위문 공양비 왜곡돼 유감” 부산경승실, 찬조금 논란 입장

이금형 부산경찰청장이 올해 초 부산 경찰청 경승실 관계자들에게 찬조금 500만원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경찰청 경승실이 위문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왜곡 보도됐다고 해명에 나섰다. 부산경찰청 경승실(실장 수불, 이하 경승실)은 7월 18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과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의경들을 격려하고 위문하기 위해 관례적으로 전달한 선의의 마음이 왜곡 보도됐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경승실은 “선의의 위문 행사를 왜곡하여 부당하게 보도한 일부 언론사에 대하여 적극 해명하고 정정 보도 요구를 분명히 할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의견 위문 행사시 관계법령을 검토해 선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위문 행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선학원 분원장스님들께 호소합니다. 선학원의 설립정신을 지켜주십시오

지난 6월 30일 선학원 임원들은 종단에 제적원을 제출하였으며, 7월 7일 교계기자간담회를 통해 탈종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종단과의 관계 정립을 바라는 대다수 분원장스님들과 종도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정입니다.

선학원은 종단 선대 어른스님들과 주요 사찰들이 일제시절 한국불교의 왜색화에 저항하고, 전통교단의 선종을 계승하기 위해 삼보정재를 출언하여 설립한 법인입니다. 때문에 지금 선학원 이사장과 임원들의 본분사는 전통교단으로서의 종단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종단의 선종을 진작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선학원의 이사장과 임원들은 이러한 본분사와는 상반되는 결정을 통해 선학원의 설립취지를 왜곡시키고, 탈종단화하고 있습니다.

선학원은 이사장과 임원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선학원의 설립취지를 온전히 계승 발전시켜야 할 이사장과 임원들은 기독교 유지를 위해 분원장스님들에게 사실상 탈종을 종용하고 있습

니다. 종단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도 사실상 거부하고, 종단과의 대화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선학원 분원장들과 종도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선학원 이사장과 임원들이 종단의 종헌종법을 준수하고, 종단의 종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선학원 분원장스님들과 종도들께서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학원이 종단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종단과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구본사주지들은 종단의 뜻에 따라 선학원 이사장과 임원들이 종헌종법을 위반하는 행위나 결정에 대해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선학원 이사장과 임원들의 탈종단행위에 대해 선학원 분원장님들께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종단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